

지 상 법 석

‘오늘 불행’을 행복으로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9)

白侍郎六讚偈并序 (백시랑 육찬게법서) ③

發願 발원 사홍서원을 갖춰 발원함

禪源發去 涅槃願主 十地願登 四生願度 번뇌원거 열반원주 십지원등 사생원도

번뇌는 물러가기를 바라오며(번뇌무진 서원단), 부처의 열반에 머물기 원하며, 보살의 십지에 오르기 원하며(불도무상 서원성), 사생제도를 원하오며(중생무변 서원도)

佛出世時 願我母親 最善勸導 請轉法輪 불출세시 원아독친 최선권경 청전법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나누실 때 내가 친히 밝고 최초로 권하여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자 원하오며(법문무량서원화)

佛滅度時 願我所得 最後供養 受菩提記 불멸도시 원아독처 최후공양 수보살기

부처님께서 멸도에 드실때 내가 거기

“만법 마음나툼이니 지극히 고요하면 한 마음으로 능히 만가지 행이 나도다”

에 이르러 최후의 공양을 올리고 보살의 수기를 원하오나이다.(부처님 열반시 일체천인의 공양을 마다하시고 오직 순타의 공양 받으시며 최후공양의 복이 일체의 복보다 수승하다 하심)

仁宗皇帝讚三寶文 (인종황제 찬삼보문)

讚佛 찬불 부처님을 찬탄함

天上天下 金剛世尊 一心十號 四智三身 천상천하 금강세존 일심십호 사지삼신

천상천하에 위없는 금강세존이시여 한마음의 갖가지 명호로 나누시고 무루·불이의 자재함을 보이시고 법신·보신·화신으로 감응하시

度脫五塗 超踰六塵 生靈盡救 所謂濟二 도탈오투 초유육진 생령구경 소위능인

오온의 생사바다를 건너고 육경의 티끌을 넘어서 구경 열반에 이르시니 일체중생이 귀의 공경하매 이른바 사생의 지부이십니다.

讚法 찬법 법을 찬탄함

萬法唯心 心須至靜 由彼一心 能生萬行 만법유심 심수지정 유괴일심 능생만행

만법은 오직 마음의 나툼이라 마음은 모름지기 지극히 고요할지니 저 한마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만가지 행이 나도다

背覺為妄 悟真則聖 稱善法門 昭然佛性 배각위망 오진즉성 계수법문 소연불성

깨우침을 등지면 망념이되고 진여자성을 깨달은 즉 바로 부처라 법문에 머리로써 귀의하니 불성은 절로 밝고 뚜렷하도라

讚僧 찬승 스님을 찬탄함

六度無懈 四聖諦常 為人眼目 助佛津梁 육도무해 사은비상 위인안목 조불진량

육바라밀 수행에 게으르지 않고 네가 지 은혜에 잊지 않았을지라(늘 겸손한 지라) 중생의 안목이 되어 부처님의 진량(중생제도: 불법은 고해를 건너는 나루요 교량)을 돕는다

體圓一心 薰染香 道無不在 此土他方 체원일우 심혼중향 도무부재 차토라방

체원일우 심혼중향 도무부재 차토라방

明教高禪師尊僧篇 (명교승선사존승편) ①

教必尊僧 何謂也 僧也者 以佛為姓 교필존승 하위야 승야자 이불 위성

이래로 위가 이래로 위가

불교가 반드시 스님을 존승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스님이란 불로써 성씨를 삼고 여래로써 집을 삼으며

以法為身 以慧為命 以禪悅 為食故 이법위신 이혜위명 이선열 위식고 자타타 不離世家 불시속씨 불영세가

법으로써 몸을 삼고 지혜(반야지)로써 목숨을 삼으며 선정삼매의 즐거움으로써 밥을 삼는 고로 속세의 성씨(가문)에 의지하지 않고 세속의 가정을 이루어나 꾸러가지 않는다. 龍眼

부처와 중생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밝으면 부처라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중생이라 하므로 일찌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부처님도 마음에서 태어나고 중생 또한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팔만사천 종류의 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법문들의 진정한 내용은 결국 한 뜻으로 통하는 것이니,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물과 생명들에 대한 실상을 냉철하게 통찰하여 깨달도록 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은 모든 법에 근본이 되고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행동 또한 악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한 죄와 고통이 악행을 따르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에 자국이 따르는 듯하고, 마음으로 착한 생각을 하면 행동 또한 착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복과 즐거움이 선행을 따르는 것은 마치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음 하나를 삼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마침내 우리도 부처님적 자기로 살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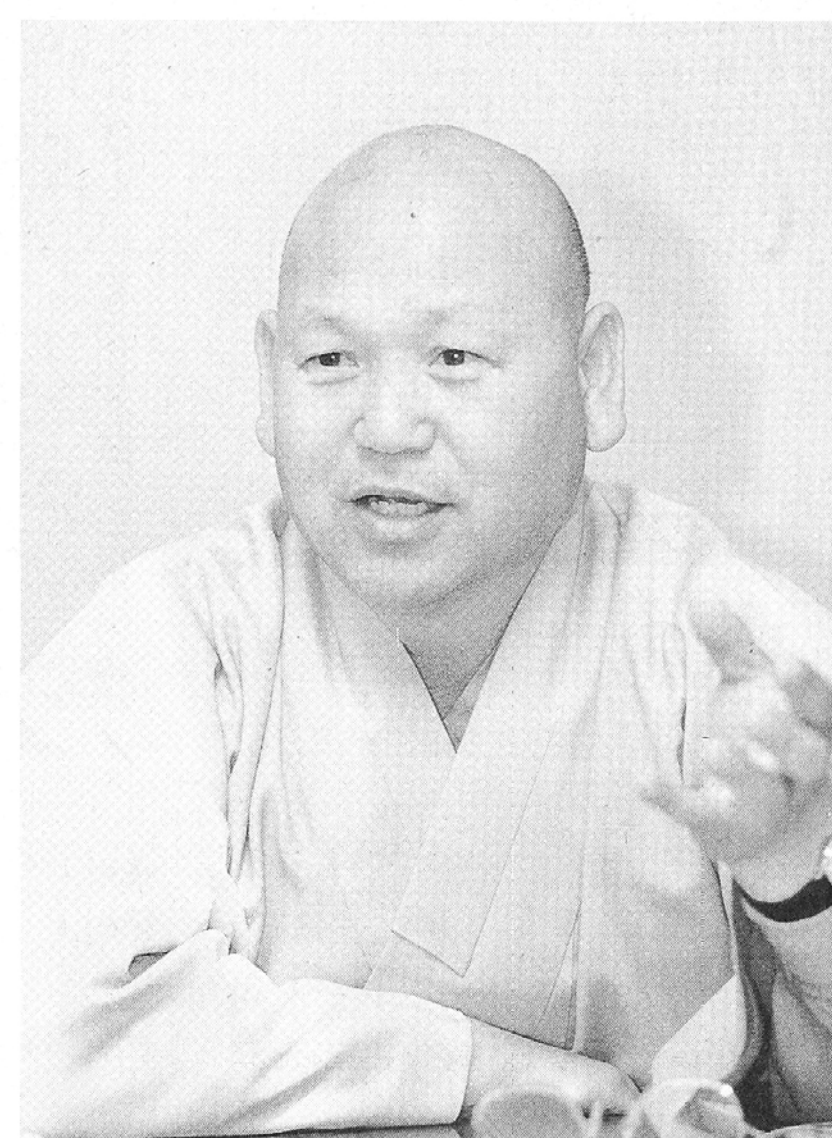
부처님은 마음으로 사물실상 통찰하고 자비·지혜 실천으로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평소 생각하던 그 실천적인 세 단계 삶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思惟)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유하는 삶이란 이미 세속적인 사람분별을 철저히 떠났으며, 오직 순수한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를 근원적으로 관조하여 비본질적인 자아로부터 본질적인 자아로 나아가는 정신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사유하는 정신적 계기를 가지는데 있는 것이고, 사유하는 삶의 계기를 통해 대자유의 인간으로서 첫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저마다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속에 존재하면서 보다 높고, 보다 확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바, 힘없이 자기 앞에 전개되어오는 새로운 사상들을 통해 자기를 정화하고, 넓은 사상이나 관습을 버리면서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즉 자기자아에 대한 무자각하고 무반성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도 있는 바와 같이

월탄스님 <용화사 주진>

약 력 · 1937년 생 · 55년 화엄시에서 득도 · 68년 동국대 불교과 졸업 73년 동대학원 석사 · 조계종 4, 5, 6, 8, 9, 10대 중앙종회 의원 8대 종회직역임 · 조계사, 전등사, 법주사 주지역임 · 현 동국대승기흥동문회 회장,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무의미하게 끝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삶의 개체적 주인 공입니다. 사유적인 삶도, 무의미한 삶도 바로 그 주인공은 자기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을 하신 뜻도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육체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가 합쳐져서 하나의 인격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 자아는 자기 자신을 보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만 살고, 정신적인 사유가 없는 동물은 죽을 때까지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정한 참 자아는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정신을 지닌 인격자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지닌 인격자아를 이롭게 하여 부처님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적 자아인 인격자아가 잠시라도 소홀해지면 육체적 자아는 본능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속고, 코에 속고, 입에 속고, 촉각에 속고있다. 눈은 보기는 하되 듣지 못한다. 귀는 듣기는 하되 보지 못한다. 코는 냄새를 맡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입은 맛을 느끼되 냄새를 식별하지 못한다. 촉각은 촉고, 대움을 식별하되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 감각기관은 다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하는 삶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자아의 근본적인 결함, 즉 근본무명을 깨달아야 하고, 부처님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유하는 삶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었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사유하는 삶을 통해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안하시면 땅으로 넘어진 지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듯이 마음이 어리석어 어두운 지는 마음으로 지혜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되어 불교 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원을 대학교육 체제로 갖추고 종합적인 불교 전통의식을 배움으로서 불교의 의식인 법패와 승무, 요잡 및 작법은 전통의 맥을 이어갈것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것이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사라져가는 법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 시키고자 불교 전통 의식 교육에 뜻이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입학의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합장

- 1.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제
연구 과정 요잡,작법,안차비 등 10명 1년제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의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5)전형료 : 30,000원
※ 교육시간 : 주5회(월~금)
접수일자 : 1996년 2월 26일~3월 15일
▼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흥대문구 청량리2동 604번지
☎(02) 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